


 코어메드
이미숙 대표이사

1.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소개해 주십시오.

코어메드는 지난 5년간 개인의 '건강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형태의 생체정보를 자동분석, 판정해주는 헬스케어 전용 IT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건강추구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건강검진 DB와 개인의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각 팩터(200 여종)간의 상관관계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문제점을 자동판정하고 앞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관리과제, 관리목표를 제시한 다음, 주기적으로 맞춤형 처방(생활/운동/영양)을 제공하고 헬스플래너와 함께 건강을 추구해나가는 1차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세브란스스포츠센터와의 산학협동으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건강검진용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으로서, 2003년에 상용화되어 현재 여러 의료기관과 전산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교정 프로그램'은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 식습관 등)을 파악하여 질병예방을 위해 교정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교정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온라인 자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험사 설계사 톨 또는 밀착 고객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Care(www.the-care.co.kr)"는 언제 어디서든 원격측정장비에 의해 도출된 혈당, 체지방, 혈압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생체정보와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과의 연관관계를 자동분석, 판정하여 개인별 관리과제 실천강령, 생활/운동/영양처방 등을 제시하며, 온라인 상에서 2주단위의 자가관리툴을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을 추구해나가는 u-헬스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2. 귀사의 u-헬스케어 부분에서의 대표적인 참여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파주 교하 u-시티, u-헬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KT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기초/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 시스템 구축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정통부 보건복지정보화사업, 마산시 시범사업(u-Park)에 참여하였는데, 원격측정장비에서 전송되는 생체정보를 자동분석하여 맞춤형처방을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건설사로는 두산건설 제니스타워에 u-피트니스 시스템, 경남기업에 원격상담시스템 구축작업이 있으며,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IPTV 헬스부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이 수행중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생체정보단말에 대하여 서비스 시나리오 모형개발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공동연구과제로서 2007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u-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귀사는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장비들이 아직은 당뇨, 혈압 등 제한된 항목만 가능하며, 확산일로에 있는 u-헬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최근 몇몇 시범사업을 통해 해소되고는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국민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향상에 u-헬스가 제 역할을 담당하려면 좀더 다양하고 정밀한 측정장비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미미한 것은 관련 의료법 개정과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보험 재정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대안으로서 헬스케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저희들은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및 수준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향후 헬스케어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부터 미래에는 생활습관교정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측하여, 대단위 고객을 위한 동시형, 맞춤형, 자가관리가 가능한 '생체정보 자동분석/판정/처방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u-헬스케어의 핵심기술로 인식되어 자연스럽게 파주 교하신도시 구축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이 정보포털과 인력에 의존하는 서비스에 취중하고 있는 반면, 향후 2~3년간 저희들은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기반시스템이 정착되면 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으로 시장이 견고해질 때까지는 지속적인 시장 개척과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두바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현재 국내 대표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의료바이오 컨소시엄(Do-Bio)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바이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ww.coremed.co.kr 02-313-589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기업소개

분당서울대병원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



분당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
이학중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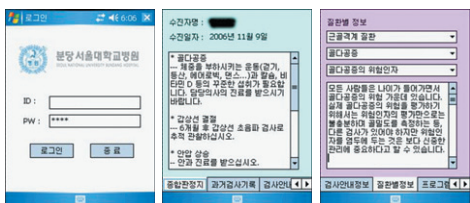
1. 귀원의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스템은 ‘병원정보 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으로 전자차트 등 병원 정보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병원의료진에게는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환자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지케어텍(주)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무선랜이 설치된 병원환경에서 PDA를 이용한 Hospi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검사절차의 자동화 및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 시스템은 수신자에게 원내 PDA를 지급하여 의료정보시스템에 연동되며 수신자는 본인과 관련된 검사안내, 해당 검사에 대한 설명 및 검사결과 등의 건강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실에서는 수신자 호출을 위해 메시지를 등록하면 수신자의 PDA에 메시지 창이 나타나 별도의 호명없이 수신자는 검사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수신자의 검사 상태를 조회하여 병원직원이 수신자의 남은 검사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검사실의 상태(현재 대기수진자, 예상대기시간, 남은 수진자, 당일 총수진자)를 파악한 후 시간효율을 고려하여 수신자들을 검사실로 이동시키는 등 실시간으로 수신자들의 정보 및 검사진행 상태를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귀원의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을 통해 수신자는 건강검진 대기시간의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병원직원은 수신자의 관리 및 검사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신자는 PDA를 통해 이전에 실시하였던 건강검



진검사의 종합결과 및 소견, 검사 및 질환 안내 정보, 대기 중인 검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에 대한 검색도 가

능합니다.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은 향후 외래 혹은 응급실 등 타 진료과의 검사과정에서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헬스케어 분야에 유비쿼터스 시스템 적용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을 포함한 의료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귀원은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입대상인 수신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을 수신자에게 적용하기 전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제공과 수신자 위치 파악과 관련한 동의서를 준비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의 개발로 기존의 업무흐름과 다른 새로운 업무 흐름에 대하여 수신자나 병원 직원 모두 달라진 업무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의료진에게 전문지식 및 실무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수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의료정보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원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검사안내 시스템’ 시범사업 외에도 RFID 태그를 이용한 ‘실시간 실행 및 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실행 및 자원관리 시스템’은 환자 및 장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PDA형 RFID 리더기와 RFID 리더 기능의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여 환자관리, 투약 및 처치 확인, 장비의 실시간 활용도 관리, 약품 및 검체 반송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실행 및 자원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RFID를 이용한 의약품 관리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진료 카드, 검사안내, 실시간 재고관리, 장비위치관리에도 RFID 태그를 확대 적용하는 등 u-hospital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의료정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첨단 디지털 병원으로서 효과적인 환자 및 수신자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에 의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을 더욱 더 해 나갈 생각입니다.

www.snubh.org 1588-3369